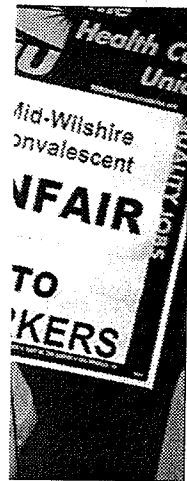


1) 수익이 큼
2) 단속을 펼치고 있
3) 기로 인해 불이익을
4) 규정에 더욱 신경
당부했다.
23) 881-4180 이경

1-4027 아키코 타



한 의료보험 혜택을
〈전홍철 기자〉

들 시위

1) 단체협상을 갖고
2) 시간당 50센트 인
3) 가족들에게도 의료
4) 것을 합의했다는 것
5) 협상후 병원측 대표
6) 서명을 했으며 병원
7) 상안에 따라 임금을
8) 다음달인 9월 들연
9) 후 의료보험 적용
10) 주장했다.

스트라다 디렉터는
상을 제의했으나 당
협상 동의안의 임금
조항을 지적하기

한국노인회 공조회 탈퇴 60여명 다른 상조회 곧 가입

대책모임 대표 이적 합의

한국노인회(회장 정의식) 산하 공조회가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다.

공조회 회원 60여명이 28일 열린 대책모임에서 노인회 공조회를 탈퇴하기로 한데 이어 29일에는 대책모임 대표 3명이 한국노인상조회(회장 노천환)를 찾아가 가입협상에 합의했다.

탈퇴 회원들은 대표단의 결정에 따르기로 일임한 상태여서 28일 이미 탈퇴를 결의한 60여명의 회원도 대부분 가입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공조회측이 사망한 회원에 대한 상조금을 제대로 지급치 못하는 등 운영에 차질을 빚으면서 야기된 이번 사태는 일부 회원들의 대량 탈퇴·이적으로 이어졌고 나머지 회원들의 동요까지 예상돼, 공조회의 운명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약 380여명의 회원이 등록된 공조회는 회관 경매 파동 이후 일부 회원들이 상조비를 내지 않아 운영에 큰 차질을 빚어 왔으며 이번 사태로 회원이 줄어들면 나머지 회원들마저 재정상태가 건실한 타 노인상조회로 옮길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30일 오전 11시 한국노인상조회를 찾은 신동희, 장달웅, 신현철씨 등 수습

대표 3인은 노인상조회측에 공조회 회원들에 한해서 가입비(100달러)를 면제하는 등 이적에 따른 혜택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상조회의 노천환 회장은 가입비와 연회비(2000년분), 그리고 신체검사를 면제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공조회 가입기간을 인정해

달라는 수습대표들의 요구는 현회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한편 상조회측은 오는 12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 이적하는 공조회 회원들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용택 기자

<hytk@joongangusa.com>

알아보았습니다

마일리지로 항공좌석 업그레이드 번번이 안돼

문 비즈니스 관계로 한국을 자주 다녀오는 편입니다. 주로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하는 데 지난 여름 그동안 쌓인 마일리지로 좌석을 비즈니스클래스로 업그레이드 하려하니 마일리지 업그레이드가 안되는 기간이라고 해 일반석을 타야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12월 초 좌석을 예약하며 업그레이드를

요구했더니 주말비행기라서 좌석이 없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주위에서 듣기론 항공사들이 업그레이드용으로 배정한 비즈니스와 일등석 좌석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공사들이 너무 적은 좌석만 업그레이드로 배정해 상용고객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 같습니다.

〈케니 신·라크레센타 거주〉

여름·겨울 성수기만 피하면 대부분 가능

답 먼저 아시아나의 고객이 불편을 겪으셨다는데 대해 사과드립니다. 예약이 쇠도하는 성수기의 경우, 업그레이드 좌석 비율에 제한을 두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고객들이 좌석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드문 편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비즈니스 좌석의 50% 안팎에서 비율을 정하지만 이것이 제대로 적용되는

으로 70%가 넘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여름시즌에 좌석 업그레이드를 하지 못하신 것은 여름 일부 기간동안 이를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쟁항공사도 같은 기간엔 마일리지 업그레이드를 안해주고 있으며 지난 여름은 7월20일부터 8월20일, 이번 겨울엔 12월23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성수기 주말편을 피해 사전 예약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수퍼로토플러스

11월 29일 수요일

이벤트종	21, 24, 26, 27, 47
------	--------------------